

보건의료의 위기와 한국 건강보험의 뉴 패러다임 선택

A Crisis of Healthcare and Korea

National Insurance's Selection of New Paradigm

김 명 희
삼육대학교

Kim Myung-Hee
Sahmyook University

요약

최근 급변하는 한국 보건의료환경 가운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보건의료재정의 적자 및 막대한 비용 상승이 전망되면서 보건의료체계에 위기감이 조성되어왔다. 도입 초부터 줄곧 형평성과 접근성을 강조했던 구 건강보험 패러다임에 대해 사회 일각이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해왔으며 보건의료당국은 최근 “선진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개혁을 예고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 보건의료환경을 진단하여 패러다임 전환의 당위성을 제기하며 신·구 패러다임의 비교분석을 통해 신 패러다임의 특징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내·외 문헌자료와 전문가들의 인터뷰 자료 등 2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비교분석결과, 전환된 패러다임 하에서 한국의 향후 보건의료개혁의 방향은 효율성(equity) 강화와 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주의(stewardship)를 구현할 것임을 도출하였다.

I. 서론

한국에서 본격적인 보건의료체계의 수립은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이다. 의료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되었지만 시행이 유보되어 오다가 1977년에 이르러서야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었으며 12년 만인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으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¹⁻²⁾.

초창기 한국의 의료보험 패러다임은 의료를 공공재로 보고 형평성과 접근성 가치를 중시했으며 37년이 지난 지금까지 당시의 저부담-저급여-혼합진료-치료위주의 패러다임이 유지되어왔다. 비교적 낮은 의료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나눠준다는 점에서 당시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이른바 ‘개발도상국형 패러다임’ 또는 77년에 도입되었다고 하여 ‘77 패러다임’으로 불리면서 이후 3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골격이 유지되어왔다¹⁾. 그러나 이미 서구 선진국들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료개혁을 단행한데 비해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보건의료체계의 부실이 우려되는 한국은 최근까지도 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 심지어 국제기구들이 학계와 현장에서 기존 패러다임의 수정과 위기 상황을 대비한 신속한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였고¹⁻²⁾, 급속히 달라진 보건의료환경으로 인해 2014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선진형 건강보험 패러다임’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변화를 시사했다³⁻⁴⁾.

이 논문은 한국의 보건의료환경 진단을 통해 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신·구 패러다임 간 비교분석을 통해 신 패러다임의 특징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발간된 국내·외 보건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들을 참조한다. 국내 학술논문, 외국저널, 정부부처의 보고서, 국회의사록, 협약서, 각종 단체 공식문서, WHO 및 OECD의 보건데이터와 뉴스레터, 리포트, 웹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통계청의 보건의료 데이터와 분석보고서, 정·부정기 간행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논문의 구성은 I장 서론과 II장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III장 건강보험의 신·구 패러다임 비교분석, IV장 신 패러다임의 특징: 효율성과 책임주의, V장 결론 및 시사점으로 이뤄진다.

II.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1. 보건의료환경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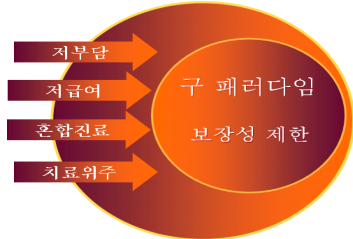
- 1.1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 1.2 상병구조의 변화
- 1.3 의료비의 급속한 지출 증가
- 1.4 보건의료 이념의 변화
- 1.5 국민건강정보 빅 데이터의 축적

2. 보건의료체계의 재정적자 위기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계층은 점점 줄어드는 대신 급여를 받는 계층이 늘어남으로써 현재와 같은 보건의료재정으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 즉 보건의료체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원확보와 지출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Ⅲ. 건강보험의 신·구 패러다임 비교분석

1. 구 패러다임: 77 패러다임



2. 신 패러다임: 선진형 패러다임



Ⅳ. 신 패러다임의 특징: 효율성과 책임주의

1. 효율성 강화

전반적으로 신 패러다임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자원을 투입하기보다 내부체계의 비효율을 개선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효율성 강화를 중시한다. 보장성 강화라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보험료의 적정부담과 적정급여를 제시하는 이유는 GDP대비 한국의 의료비 비중이 7.1%로 미국 17.6%, 영국 9.6%, 일본 9.5%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료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주무집행기관이 마련한 방안은 우선 지출절감을 위해 보험료부과체계를 개선하고 급여구조도 비급여를 줄여나가는 등 급여를 현실화하는 방안이다(3-4). 이것은 추가 자원의 확보를 모색하기보다 우선적으로 체계내부의 비효율적 구조를 개편하여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한편 예방위주의 패러다임은 질병을 예방하는 것만이 일어나는 보건의료재정 지출을 방지하므로 국민 개개인의 올바른 식생활, 운동, 금연, 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미 기존의 검진사업을 “생애맞춤형 평생건강검진”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예방위주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다.

2. 책임주의의 강조

신 패러다임은 그동안 확보해둔 총 1조 3,034억 건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건강, 질병형태에 대해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을 하고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강조한다. 예방에는 무엇보다 건강 공급자

들인 국가, 국민, 보건당국자 및 의료공급자들 모두가 각자 건강에 대한 주어진 책임을 다할 때만 이 가능하다. 신 패러다임은 바로 보건의료체계의 기능인 책임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책임주의(stewardship)란 “국가 보건의 효과적인 신탁관리(the effective trusteeship on national health)”, 또는 인구의 복지에 대한 신중하고 책임 있는 관리[5]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정부에 의해 혹은 정부의 대리인에 의해 이뤄지는 의무의 사심 없는 이행(the disinterested performance of a duty by government or its agents)”이다. 책임주의는 보건의료체계의 네 가지 핵심 기능의 하나로서 나머지 세 기능인 재원조달, 자원창출, 서비스전달에 영향을 주는 건강을 촉진 및 강화시키는 정책과 정책수단을 활용한 국가 및 국가보건당국이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관리를 말한다[5].

신 패러다임은 다양한 국민의 보건의료욕구와 제도개혁에 대한 사회환경적 요구를 반영하고 국가 보건당국이 구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의 평생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국가의 건강 책임주의를 강조한다.

V. 결론 및 시사점

신 패러다임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4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한다(3-4). 4대 정책방향이란 보장성 강화 및 공정한 료 확립, 고효율·가치지향 의료시스템 구축,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혁신, 지출합리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의 확보로서 신 패러다임은 이를 반영한 것이며 의료민영화 논의도 이 같은 신 패러다임과 무관하지 않다. 책임주의 시각에서 보험료의 적정부담과 적정급여를 형평성 있게 관리하고 건강관리 공급체계를 확대하여 의료공급의 효율성을 확보하며 보건의료체계를 치료중심보다는 예방위주로의 전환은 국가 책임 하에 가능하다. 그러나 효율성과 책임주의 구현은 결국 국민과 민간부문의 이에 대한 수용과 행동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신 패러다임에 맞추어 향후 수립될 보건의료 대책과 서비스들은 시민적 합의 하에 삶의 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이규식, “보건의료체계의 발전과 성찰”, 보건행정학회지, 제23권, 제4호, pp.303-313, 2013.
- [2] 이은경,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제167호, pp.32-46, 2010.
- [3]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의 변화와 혁신 ‘건강보험 선진형 패러다임’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지원실, 2014. <http://www.nhis.or.kr/cms/board/board/Board.jsp?searchType=ALL&searchWord=&...>
- [4] 후생신보, 보건의료 새 패러다임 예방의학-현황과 정책 과제, 2014년 신년특집, 2014. 1. 2.
- [5] WHO, The World Health Report 2000, Health Systems : Improving Performanc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0.